민주당 광주·전남 지방의회 의장후보 당내 경선 지시

"자율성 침해…민주독식 심화" 반발

광주시의회 하반기 원구성 안갯속

시의장 선거 다선의원 유리 전망도

민주통합당이 제6대 광주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의장 후보를 당내 경선으로 선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하반기 원구성이 안갯속으로 치닫게 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들은 풀뿌리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민주당 '독식' 우려가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18일 민주통합당 광주시당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최근 '지방의회 의장 선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일선 지방의회에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우선 민주당내 경선을 통해 후보를 뽑은 뒤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방안과 당선을 위해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과 연대할 경우 징계 처리한다는 것이다. 원구성 과정에서 민주당 내 이탈표를 방지하기 위한 지침으로 보인다.

또한, 다른 정당이 다수당에 도전할 경우 의장단 구성 자체에서 제외한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장병완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원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중앙당의 이러한 방침은 오는 12월 대선 승리를 위해 지방의회에서부터 민주통합당이 단결해야한다는 배경이 깔려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내 경선을 치러야하는 지방의회 선거 지침으로 인해 다선과 다선, 다선과 초선그룹 간 대결구도를 보이고 있는 광주시의회 의장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현재 광주시의원 26명 중 민주통합당 소속은 18명으로, 이 중 4명이 재선 이상의 다선 의원이며, 나머지 14명은 초선 의원들이다. 의회 내부에서는 우선 전반기 의장단 구성 과정에서 소외됐던 다선그룹이 하반기 의장선거에서는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반기 원구성이 초선그룹 내 진보성향 의원들 중심으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다선그룹 중에는 3선의 손재홍(민주·동구 2)·나종천(민주·남구 3), 재선의 조호권(민주·북구 5)·진선기(민주·북구 1) 의원 등이 뛰고 있다. 그러나 초선그룹에서도 당내 경선을 치를 경우 결코 밀리지 않을 것이라며 의욕을 보이고 있어 결과는 예단하기 힘들다.

초선그룹 내 의장선거에 뜻을 두고 있는 의원들은 서정성(민주·남구 2)·김영남(민주·서구 3) 의원 등이다.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들은 민주당 내 경선 방침에 대해 풀뿌리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비민주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민주통합당이 당내 경선을 통해 상반기 원구성처럼 의장부터 부의장·상임위원장까지 의장단 및 위원장단을 '싹쓸이 나눠먹기'할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다음달 6일 제20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장단 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경선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벌일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 김한길 최고위원 등이 18일 오전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한완상 "색깔론 논란 박근혜, 아직도 부친이 수렴청정"

한완상 전 부총리는 18일 "이번 색깔론(논란 과정)을 보면서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의 부친이 아직 정신적으로 (박 전 위원장을) 수렴청정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박 전 위원장이 비록 유신체제의 딸이지만 그 체제엔 갇히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대통령과 함께 색깔론을 지키는 것을 보고 참 실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부총리는 "그의 부친 못지않게 집권당을 장악하는 모습이나 간부들이 그의 눈치를 보는 모습을 보면 딱할 정도"라며 "아버지의 권위주의보다 더 강한 것 같다. 이것도 과거회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인권이나 3대 세습체제 등을 놓고 종북주의자를 가려내자는 것은 헌법이 보장된 사상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무서운 발상"이라며 "종북논쟁을 확산, 심화시키면 박 전 대통령이 종북주의 원조의 한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 지지그룹인 '담쟁이포럼' 대표인 그는 "문 고문이나 김두관 경남지사, 안철수 교수 중 한 명이 단일화돼야 승산이 있다는 영남후보론에 찬성한다"며 "다만, 과거 '우리가 남이가'식의 연대를 넘어 가치와 정책을 통한 영남후보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이재오 "분단국가서 여성 리더쉽 시기상조"…박근혜 겨냥 한듯

대권도전을 선언한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18일 "분단 현실을 체험하지 않고 국방을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여성이라는 이유로 리더십을 갖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클럽 초청 회견에서 '정치발전을 위한 여성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를 질문받고 "나라가 통일돼 평화로워진 후라면 몰라도 아직은 시기가 이르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새누리당의 유력한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됐다.

그는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이고 지금 북한은 호전적인 젊은 지도자가 통치하고 있는데 우리 현실에서는 아직 국방을 책임지는 리더십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박민식 의원 "유출 당원명부 총선 공천때 사용 가능성"

새누리당 당원명부 유출사건 진상조사대책팀장을 맡은 박민식 의원은 18일 당원명부 유출 파문과 관련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다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당시 조직책임자인 권영세 전 사무총장에 대한 조사도 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런 분들도 협조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유출된 당원 명부가 지난 4·11 총선 공천 과정에서 사용됐을 가능성에 대해 "곤혹스럽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정치신인들 입장에선 그런 명단에 대한 갈증이 상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당원명부가 통째로 유출됐기 때문에 경선방식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며 "현행 경선방식의 경우 당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당원에서 추출된 선거인명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초선 황주홍 '바쁘다 바빠'

국회 개원 늑장 불구 지역예산·현안 해결 분주

국회 개원이 늦어지면서 의원들이 '무위도식(無爲徒食)'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초선인 황주홍 의원(장흥·강진·영암)은 지역예산 확보와 현안 해결을 위한 간담회 등으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 눈길을 끈다.

황 의원은 총선 이후 18일까지 4차례 주제별 지역발전 간담회와 3개 군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한 데 이어 희망 상임위인 농식품위 활동을 위해 토론회를 준비하는 등 어느 초선보다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그는 우선 지난달 23일과 25일, 31일 각각 장흥·강진·영암군과 연이어 정책협의회를 갖고 지역현안 해결방안은 물론 2013년도 국비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황의원은 정책협의회를 바탕으로 다음달 4일 농림수산식품부에 재직하는 장흥·강진·영암출신 공직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구체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는 또한 ▲영암고와 영암여고의 발전방향(영암, 4월25일) ▲성화대학발전방향(강진, 4월27일) ▲통합의료센터 의의와 발전방향(장흥, 5월1일) ▲삼호교육의 오늘과 내일(영암, 5월25일) 등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나아가 황 의원은 오는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장에서 '한미FTA 발효 100일 긴급점검-한국농업은 굳건한가'라는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지난 3월15일 한미FTA 가 발효된 이후 농업분야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다.

황 의원은 이어 다음달 10일 이명박 정부의 농정을 평가하고 19대 국회가 풀어야 할 농정현안을 진단하는 '농정대토론회'를 한농연 등 농민단체들과 공동개최할 예정이다.

황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초선다움을 결코 잃지 않겠다"며 "정치쇄신, 국회개혁, 중앙당 변화를 의정활동의 3대 축으로 누구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가 라운지

이용섭 "특정 대선후보 지지 없다"

민주통합당 이용섭(광주 광산을) 정책위의장은 18일 "12월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뤄낼 수 있는 보물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정책위의장직을 맡고 있는 동안에는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철저하게 중립을 지킬 것"이라며 "좋은 정책을 통해 민주통합당이 국민에게 수권정당으로서의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는 것이 저의 주어진 역할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선거이며, 정권교체는 진보진영에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라며 "정권교체를 이뤄낼 수 있는 보물, 진정으로 국민이 원하는 큰 바위 얼굴이 누구인지 찾게 되면 당직을 내려놓고 공개적으로 지지해 대선 승리를 위해 뛸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선관위, 대선부정감시단 모집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월 19일 치르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선거법 안내 등 업무를 수행할 선거부정감시단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선거부정감시단은 선거법 안내 및 예방활동·선거부정 감시·단속업무 보조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모집 기간은 이달 22일까지이며, 모집 인원은 위원회별로 3명~6명이다.

근무기한은 대선이 종료될 때까지다. 자격요건은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니면 누구나 가능하다. 문의 062-382-4773.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경매투자
▶경매비법 배우면서 수익 내실분
▶입찰반4명 / 회비 550만원
▶특수물건만 취급
자본주 모심 (10억 이상)
|주| 오천경매 투자 연구소
OC & A Investment Institute
H·P 010 3605 5000 TEL 062 525 5000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23-2번지
E-mail : csg5000@hanmail.net

부실채권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각종공증문서 ■ 대여금
■ 법원판결문 ■ 운송료
■ 각종채권 ■ 구상금
■ 물품대금 ■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선수금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미래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

카드대금 "즉시결재"
(SC제일은행 카드매출 매입서비스)
모든가맹점 카드매출을 1시간 이내로 입금해 드립니다
현재 사용중인 카드체크기 포스 그대로 사용 가능
사용가맹점
주유소, 할인마트, 호텔, 모텔, 학원
할인의료점, 유흥업소, 각종체인점
식당, 중고차시장, 예식장, 장례식장 등
모든카드사용 가맹점
SC제일은행
카드매출 매입서비스 지정점 062-383-6364
대리점 모집 (전라권)

무등빌딩임대
무등산이 보이는 최상의 조망권,
지하철 역세권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권,
금융지역, 상업지역이 함께 어울어져있는
업무의 편의성,
신형 주차시설 완비 · 중앙 공급식
냉 · 난방시설,
쾌적한 업무
환경
· 면 적 : 330평 / 층
(분할임대 가능)
· 용 도 : 사무실, 판매시설
임대문의 062-222-0527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